

3년간의 로스쿨 생활에 관한 고찰



장 세 인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해킹방어과 졸업
- 한일공동이공계국비장학생 제15기 선발
- 일본 Nagoya University 기계항공공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I. 서설

4년간 기계 항공공학을 전공으로 공부하였으며 법학과 관련된 교양과목조차 한 번도 수강한 적이 없고 항상 일본어, 영어 강의안 등만 읽어온 탓에 법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이 명백하여 법학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큰 불안감을 안고 입학하였습니다. 입학 초기에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비록 여러 번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법학 공부 방법론에 대한 나름의 성찰과 교수님, 동기 원우들의 도움 덕분에, 다행히도 무사히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로스쿨 생활과 변호사시험을 겪으며 법학을 공부해본 결과, 법학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과 변호사시험을 무난히 합격하는 것은 다소 그 방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3년간 공부하여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까지 수월하게 합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시간 내에 어

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반드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특정 공부방법을 본인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응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로스쿨에 입학하였을 당시에는, 공부법에 관한 아무런 고민 없이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사항을 간과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고 첫 학기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교 때와는 달리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은 이미 자신만의 공부방법 및 공부능력을 검증받아 각자 출신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온 사람들이므로 지금까지의 공부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기계 항공공학을 공부하는 것과 달리 법학을 배우고 시험에 현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첫 학기 이후에, 위와 같은 점에 관한 오관을 시정하여 다행히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하여 본인의 공부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었는지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3년간의 로스쿨 생활

1. 1학년

제가 입학하였을 2019년도는 아직 변호사시험에서 한자법전을 사용하였던 시기에 해당하여, 입학 후에 조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한자법전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다행히 일본에서 유학하며 한자에 익숙한 덕분에

에 남들보다 심리적 장벽 없이 편하게 법전을 읽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법전을 자주 들추어보며 공부한 덕분에 2, 3학년 때는 물론이고 실제 변호사시험에서도 법전을 온전히 무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한글법전으로 전환되어 위와 같이 한자에 대하여 익숙해지는 과정도 필요 없어졌고 더욱 조문학습이 쉬울 것입니다. 간혹 법전을 펴서 조문을 찾아보는 것을 귀찮고 번거롭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부디 조문학습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부지런히 법전을 습관적으로 살펴보며 기초적인 조문을 반드시 암기수준으로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판례와 조문 중에서 굳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출제 경향상 판례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판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조문에 해당하므로 조문학습을 게을리하고는 고득점을 받기가 어렵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판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평소에 법전을 자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시절에 적당히 시험 기간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상위권 성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유통기한 지난 자신감을 근거로 로스쿨에서 첫 정기고사 맞이하였습니다. 기계공학 등 공학 계열 과목을 공부할 당시에는, 특별히 암기가 요구되지도 않았고 암기를 할 필요도 없었기에 암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좋지 않은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법학이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암기능력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과 각 로스쿨 정기

고사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능력 중 하나가, 판례를 제한된 시간 내에 한 두 줄 이내로 현출 및 사안 포섭능력입니다. 실제로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경우,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험에서는 제대로 내용을 현출하지 못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한 사안 포섭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판례 학습 자체가 부족한데도 판례를 이해하였다고 착각하는 경우, 판례 학습 시에 실제 시험에 현출할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공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상하는 것보다, 법학 공부의 휘발성은 상상 이상이므로 두세 번 본 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고 그 이상의 반복 학습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로스쿨 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들은 그 중요도 및 난이도가 상당히 완벽히 자신의 지식으로서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판례의 중요도에 맞추어 지켜올 정도로 많은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항상 판례를 학습하면서 방대한 내용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시험에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운 과정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 변호사시험에서는 한정된 시간,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득한 법학 실력을 평가받게 되므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인터넷 강의를 통하여 학습하는 것이 최고의 효율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기 중에 인터넷 강의까지 수강하게 된다면,

강의를 이중으로 듣는 것이 되고 학습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정작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내용에 관한 이해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고학년이 될수록 과목별 단권화 및 정리가 필요한데, 여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다 보면 이러한 자신만의 과목별 정리가 난잡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처음 입학하고 나서 다른 동기들보다 선행이 뒤쳐져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무작정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불안해하며 조급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공부 총량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선행학습을 하였느냐 여부 자체가 변호사시험 합불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학교 수업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만약 학교 수업이 본인과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결단을 내렸다면 철저하게 학교 수업은 포기하시고 인터넷 강의에만 집중하여 강의를 통한 학습을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시키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2학년

이제 어느 정도 법학 공부에 익숙해지고 학교생활에도 적응하여 상대적으로나마 편한 시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2학기부터 전국단위 시험인 검찰 실무 및 형사재판실무가 기다리고 있어 그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직 병역을 마치지 못하여 재판연구원이나 검찰 지원자격이 없었기에 다른 동

기들에 비하여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본인의 진로에 맞추어 과목별 학습량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검찰, 재판연구원 지원을 위하여 민사법, 형사법 학습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하여 공법 영역 학습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고 향후 변호사시험 직전에 낭패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학년 1학기까지 공법을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소한의 지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부를 계속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학년 여름방학 시기에 가장 많은 로스쿨생들이 법원, 검찰청, 법무법인 등으로 실무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실무실습을 하는 것보다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급적 다양한 실무실습을 반드시 경험해보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저의 경우에, 법원, 검찰청, 법무법인, 국회, 사법연수원 실습 등 다른 로스쿨생에 비하여 많은 실습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여 후회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돌이켜보면 다양한 실습 처를 경험한 덕분에 저의 적성에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장래에 어떤 직역에 종사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찰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변호사시험이 눈앞에 닥친 큰 난관이겠지만, 종국적으로는 향후 변호사가 되어서 어떤 직역에서 종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로스쿨 학생 신분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진로체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3학년

대부분의 로스쿨에서 3학년 때 집중적으로 기록형 강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검찰 실무, 형사재판 실무 등으로 형사법 기록형에는 익숙해져 그다지 어려움이 없겠지만, 공법 및 민사법 기록형은 대부분 3학년 때 처음 접하게 되므로 하루빨리 각 과목별 기록형 문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록형이라고 하여 문제 자체가 매우 난해하거나 답안 서술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 유형이 다른 것에 불과하기에 심리적 장벽만 극복하신다면 금방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체법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록형 시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들의 모범답안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기록형 자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마다 그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변호사시험은 항상 최신판례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6, 8, 10월 모의고사의 많은 문제가 최신 1~2개년 판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최신판례를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공법에서는 그 반영비율이 더욱 높으므로 한두번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호사시험 전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Ⅲ. 로스쿨 생활의 꽃, 변호사시험

1. 모의고사

사실 1차, 2차 모의고사까지는 전 범위 시험에 익숙해지는 연습에 가깝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에 보는 3차 모의입니다. 3차 모의

이후에는 각자 개인마다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여야 하고 특별히 정해진 공부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택형 반복 학습은 필수적이므로 사례, 기록형을 공부하시더라도 선택형을 일주일에 적어도 1~2일 이상을 할애하여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6, 8, 10모의 성적변동 추이를 보면 보통 본인의 합격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기에 성적변동은 더욱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교내 성적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합격권 내라면, 석차에 따라 안정감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냥 하시던 대로 공부 계속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무조건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부할 때마다 모르는 것이 나오고, 변호사시험 직전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자책하지 마시고 남들도 다 그런 것이니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성적에 미달하는 분들은, 남은 기간에 본인이 전략적으로 집중할 과목을 정하시고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만으로 모든 과목을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본인의 성적분포에 맞추어 남들이 다 틀리는 것은 당연히 틀리고, 남들이 다 맞추는 것만큼은 틀리지 말자는 심정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보험, 어음수표법, 친족상속법 등은 기출 문제만이라도 공부하시고 깊게 공부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포기해버리면,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도 혼자 틀려야 하기에 그 리스크가 너무 크지만, 적어도

변호사시험에 반복 기출된 것만이라도 보고 간다면 최악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변호사시험 당일

저는 원래 눅자마자 바로 잠드는 편이었음에도, 변호사시험 공법 시험일 전날에 거의 뜬눈으로 5시간 정도 누워있었고 실질적으로 1시간 조금 넘게 자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극도의 긴장으로 각성상태인 것도 있지만, 저는 변호사시험 약 2달 전부터 거의 매일 30분 이상 달리기를 꾸준히 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공부를 반드시 해야만 하기에 미리 체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 두기를 바랍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미 끝난 시험은 반드시 머릿속에서 날려 보내야 합니다. 제 주변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상 채점해보니 그리 못 본 게 아니었는데도, 시험 종료 직후부터 계속 뇌리에 남아 다음 과목 공부를 방해받았다는 후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과목을 망쳤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은 '더' 망쳤을 거라는 믿음 혹은 짝은 게 다 맞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시험에 계속 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시간, 분량 분배를 적절히 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순간적인 판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읽고 나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거나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득점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빠른 판단을 습관화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전혀 모르는 문제에 대하여 처음부터 뭐라도 끄적여서 득점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남는 시간에 다시 돌아가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IV. 돌아보며

로스쿨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학업으로 힘들었던 기억도 많지만 그만큼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도 많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학업으로 고생하다 보니 사소한 휴식만으로도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운이 좋게도 좋은 로스쿨 동기들을 만나 상대적으로 편하고 행복한 로스쿨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년간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로스쿨 동기들과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3년간 학교에서 자주 봐야 하는 사람들이고, 생각보다 변호사가 되어 실무에 나와보면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3년간의 힘든 여정을 함께 이겨나갈 동료가 있고 힘

든 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을 앞둔 3학년, 이른바 로3이 되면 얼마나 힘든지 물어오는 후배님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로3이 되어보면 아시겠지만, 막상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항상 마음의 짐을 안고 1년간 생활해야 할 뿐이고, 시험을 자주 본다라는 점만 다릅니다. 따라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원래 책 보고 나서 덮으면 잊어버리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특히 선택형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2번 이상 공부했던 쟁점인데도 까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마다 절대 스트레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최상위권 성적대에 항상 머물러 있는 동기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종종 수험생 시절 꿈을 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쉽지 않은 시기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어찌 견디는 것만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건강한 정신으로 로스쿨 생활, 변호사시험 수험생활을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